

# 완도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탄력

## 郡-(주)원일 1000억 투자협약 체결

완도군이 추진하는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완도군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주)원일(회장 박영택)과 지난 12일 군 상황실에서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RDF(폐비닐 등 고체연료화기계 특허), 대형선박 엔진 전자식 연료분사 장치 세계 일류상품 선정 및 ITER(국제 핵융합 실험로) 연구개발사업에 국내 유일하게 참여한 업체이다. 계열사로는 인도네시아에 PT 한중을 두고 해상구조물과 발전설비 등을 생산하는 연간 매출액 1500억 규모의

중견기업체이다. 이에 앞서 (주)원일 관계자는 지난 3월 조류발전 적지인 횡간수도와 소안연도해 담수호 등을 방문해 지역조건을 확인했다. (주)원일은 앞으로 실시될 완도군 일원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정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00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신재생분야 핵심기술 산업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

역산업의 연계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종식 군수는 “해양에너지 개발을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완도군의 ‘해양 테크노폴리스’ 건설의 미래 동력산업인 해양관광·해양생물·해양물류, 해양에너지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해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해 해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해남서 녹차 만들기 체험 하세요

27~28일 일지암·대흥사 일원서 ‘초의문화제’

우리나라 최대의 차(茶) 축제인 ‘초의문화제’가 오는 27~28일 이틀간 해남군 일지암과 대흥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초의문화제 행사 첫날은 대흥사 경내에서 학생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내 몸의 녹차 체험학습’과 ‘녹차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해남 특산물 판매전시장 등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차 관련 상품 시음 및 전시판매장, 도자기 전시판매장, 도자기 빚기 체험과 서각체험 등 차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한편 초의문화제는 조선 후기 선다일어(茶禪一如=선과 차는 별

개 아닌 한 경지이다) 사상을 주창하며 쇠퇴해져 가던 우리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1824~1866)의 다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대흥사와 해남다일회 주최로 매년 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슬로시티에 ‘느림 메시지’ 울렸다

## 완도 ‘느림의 종’ 티종식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느림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완도군은 지난 14일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 도청항 미항길에서 ‘2012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공식행사 일환으로 ‘느림의 종(鐘) 티종식’을 가졌다. 도청항 미항길은 ‘청산도 슬로길’의 시작이자 청산도 관광이다. 이날 티종식은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종식 완도군수, 손대현 국제 슬로시티연맹 부회장,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CP에 출연한 연기자 손현주씨, 한국 슬로시티 홍보대사인 연기자 김혜정씨, 김영록 국회의원, 장석홍 함평부군수, 성무용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축제 개막에 맞춰 새롭게 단장된 ‘느림의 종’을 제막하고, 타종하는 행사를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림의 메시지가 종소리와 함께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했다.

‘느림의 종’은 청산도를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슬로걸 걷기의 시작을 알리고 느림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 설치됐다. ‘청산도 슬로길(11코스·42.195km)’은 2011년 세계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인증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드라마 ‘봄의 왈츠’ 세트장 앞에서 완도군과 함평군의 관광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나비 날리기 행사인 ‘나비야, 청산가자’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600여 마리의 나비를 노란 유채꽃밭에 날리면서 양군 대표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수 세계박람회 등 전남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최근 숙박체험 복합시설로 리모델링된 ‘느린섬 여행학교’에서는 한국농업유산연대가 주관하는 ‘청산도 구들장은 지키기 운동’이 전개됐다. 한편 ‘2012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신안 가거도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 공중보건조사 2명 배치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 가거도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전남도는 15일 “가거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일부터 공중보건조사 2명을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거도는 그동안 목포에서 132km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다보니 시급을

다투는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가거도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연중 등산이나 낚시 등을 즐기는 관광객이 늘면서 응급환자도 덩달아 늘어 의료시스템 확충이 당면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조사 배치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배치하게 됐다. 가거도 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며 배치된 공중보건조사 2명이 주·야간 의료 공백 없이 예방접종 등 주민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로 섬 주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조은찬(60) 이장은 “의사가 없어 몸이 아프면 목포까지 가기 위해 5시간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같은 불편이 해소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가거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북

# 전북 순회 취업박람회

내일부터 전주·익산·정읍·군산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가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전주(4월 17일)를 시작으로 ▲익산(5월 3일) ▲정읍(5월 8일) ▲군산(5월 10일) 등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열리는 올해 첫 취업박람회는 전주대학교 회합홀에서 열린다. 취업박람회는 혁신도시 입주 예정 공공기관 4곳(국민연금공단, 전기

안전공사, 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대기업 등이 참여한다. 전주대는 박람회를 위해 학교에서 1분 스피치 대회와 취업 골든벨을 준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역량을 한층 강화시켰다. 전북도 한음재 일자리정책관은 “구직자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 한마당을 준비했다”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취업의 행운이 따른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도, 저수지 독높이기사업 12곳 연내 완료

# 추가 저수량 2010만 농업용수 공급

도내에서 추진되는 15개 농업용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중 12개 사업이 올해 완료된다. 전북도는 ▲금강수계 7개 ▲섬진강수계 5개, ▲유역의 3개 등 15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전역 국비를 지원받아 총 3272억을 투입, 농업용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총 1226억원을 투입해 12월말 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재해 위험성이 있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목적·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능력 제고 ▲하천 유지유량을 방류해 농촌지역 하천의 건천화 방지 ▲수질개선 및 수변 생태계 복원 ▲장래 물 부족시대에 대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독높이기 사업 12개 지구가 준공되면 2010만여의 추가 저수량

을 확보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촌지역 소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생태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4000여 ha 수해면적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한발대비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저수지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공간(수변공원·여가시설) 등을 조성해 농촌지역의 어머니 디 증진과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북도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현황

| 수계        | 지구  | 위치          | 독높임(m) | 추가저수량(㎡)          |
|-----------|-----|-------------|--------|-------------------|
| <b>총계</b> |     |             |        |                   |
|           |     | <b>15개소</b> |        | <b>2753만 3000</b> |
| 금강        | 황금  | 진안 부귀       | 37.5   | 471만 3000         |
|           | 천천  | 장수 천천       | 5.0    | 95만 3000          |
|           | 공정  | 무주 안성       | 9.0    | 160만 8000         |
|           | 괴곡  | 무주 적상       | 13.0   | 196만              |
|           | 지소  | 장수 계곡       | 5.0    | 102만 2000         |
|           | 대곡  | 장수 장계       | 3.5    | 169만 9000         |
| 섬진강       | 신반월 | 진안 진안       | 11.0   | 103만              |
| 유역밖       | 금동  | 남원 주생       | 3.3    | 155만              |
|           | 수송  | 남원 수지       | 5.0    | 110만 5000         |
|           | 노촌  | 진안 백운       | 7.2    | 101만 4000         |
|           | 장남  | 장수 변암       | 6.5    | 203만 7000         |
| 용림        |     | 2.5         | 139만   |                   |
| 유역밖       | 대야  | 완주 동상       | 1.5    | 304만 2000         |
|           | 수청  | 정읍 칠보       | 5.0    | 250만 5000         |
|           | 고수  | 고창 고수       | 1.5    | 190만 5000         |

# 안개꽃 ‘드림송’ 재배단지 만든다

## 남원 농업기술센터 지리산 운봉 고랭지에

남원시가 국내 육종 품종인 안개꽃을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는 지리산 운봉 고랭지 화훼 단지에 우리품종 안개꽃 ‘드림송’(사진) 재배 시범단지 1.1ha를 조성,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춰 경쟁력있는 화훼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드림송’ 품종은 백색 겹꽃으로 꽃송이가 많고 한개변에 개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절기가 직립형으로 매우 우수하고, 흰가루병에도 강한 편이어서 병해방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 화훼 도매시장에서도 물물림



이 좋아 절화수명이 길어 판매가 좋은데다 관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안개꽃 소비 패턴과 소비자 기호도 변화에 따라 외국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수입되며 로열티 지불과 종묘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육성 품종이 확대 보급될 경우 농가 부담이 감소되고, 안정적인 화훼 재배와 함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새민족축제 취태대 퍼레이드

지난 13일 개막된 군산의 불철 대표축제인 ‘2012 군산 새민족 축제’에서 취태대가 거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 단신

## 전주, 장애인 전용 목욕탕 문 열어

전주시 평화동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장애인용 목욕탕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중증장애인이 일반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9억5000여만을 들여 전용 목욕탕을 건립해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대상자는 전주시 등록 1~

2급 중증장애인만 가능하다. 목욕을 보조할 보호자,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은 동행할 수 있다. 이용료는 대장탕 1000원·가족탕 2000원이며 수급자는 대장탕 무료, 가족탕은 1000원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시민위한 ‘群山學 강좌’ 운영

군산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요일 군산 시립도서관에서 ‘군산학(群山學)-군산 제대로 이해하기’ 강좌(12회)를 운영한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이번 강좌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 ▲군산은 빛

낸 인물과 그들이 남긴 흔적 ▲군산의 민속이야기 ▲군산의 성씨와 마을 음식 문화이야기 등이다. 수강 희망자(모집인원 50명)는 16일부터 23일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와 평생학습 정보방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소상공인 ‘부자만들기’ 컨설팅

정읍시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은 최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자만들기 프로젝트’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석대학교 권민택 교수와 유대근 교수를 초청, ‘경영컨설팅 마케팅 및 창업 기초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시는 교육과 함께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나눠가게 육성 지원 및 Buy 전북상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경영컨설팅 사업 알선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ks@

## 순창군,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협약

순창군은 가천대학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원장 박상철)과 지난 13일 장수분야 공동연구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수시책을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

창군이 그동안 추진했던 장수브랜드 구축 단계에서 벗어나 의·생명과학 관련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수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추진됐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